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일)

삼위일체2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경이학자도 없었다. 성경은 단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관련되어 역사하고 있음을 모두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트는 Warfield보다 더욱 강력히 언급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들은 동일한 본체나 뚜렷이 다른 본체 현상이다." 여기서 본체(Substance)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현존(Subsistence)은 존재하는 형식이나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과 홀로독재 정의를 내린다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모두 다스려 설명하기는 부족할 뿐이다.

심위임체의 지(Intellect) 정(Emotion) 의(Will)와 그의 심위와 같이 또 그의 일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은 각각 특정한 위치에 있으나 그들은 하나로써 존귀하고 역치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름없고 또 근본적으로 다ifferent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그러나, 성령이시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며, 아버지와 성령이 다르고, 성령이 아들과 다르다. 아버지는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나 이 아버지의 창조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에 이루어지고 있었다(전 8:9). 이와 비슷하게 제1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니 아들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속한 것이다. 심위임체에 대해서 우리는 모순이요 역치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로 하나님인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모리스(Henry Morris)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공간과 물질과 시간의 자연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공간(Space)은 길이, 넓이, 높이이다. 물질(Matter)은 힘, 운동, 움직임, 현상이다.

시간(Time)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 공간(Space)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있는 배경으로 그 안에 큰 Condition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들은 사건을 통하여 개념화되어 변화한다. 조건(Condition)에 따라서 물은 얼음으로의 고체화 되고 수증기로서서의 기체화 되고 물로서 액체화 되고한다. 그러하여 이는 한 가로서 셋이서 분명하다. 또 다른 것으로는 보여진 문제, 보는 행동, 본 것을 해석하는 정신이라는 원인과 시공간 그리고 결론 등으로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만족한 답을 줄 수 없고 항상 미완성까지 남을 것이다.

인간의 인간성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생위인과의 비밀을 탐할 때 새 거기로 부류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의식에 합당치 않음으로 부인과하고 돌아서거나,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는 오류에 빠지거나, 이러한 이성에서 생명이 나타난 후 인간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이다. 첫번째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식을 절대적인 진리의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자기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진리이고 자신 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사탄에게, 그러나 신자들은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생위인재는 중요하다. 우리는 생위인재에 대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야 한다.

①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이신 역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신성을 잃지 않고 성육신(육신은)이 삼위일체와의 깊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별, 아들의 영존, 성령의 역사가 삼위가 모두 삼위일체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실존(존)이 한 본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 본은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수는 본(본체)이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성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 본체에게 부수기(부수기) 때문이다(11:36).

②삼위일체는 절대적으로 동일하며 동시에 다양하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인들은 무엇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무수한 것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일까 하고 연구하였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영원한 한 분이며 또한 다양한 세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된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붙들고 계시며 의미를 피조물에게 제공하시는 절대자임을 계시해 주신다(시 95:3-6).

③성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구약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인의 구원은 일위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참 사단이 되시어서 땅과 하늘에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시는 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이르지 못할 수가 없다. 이 삼위의 역사는 죄에서 구원을 시속시키는 일을 가능케 하였다(요일 4:10). 또 영원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버지와의 의로우신 뜻에 순종하시어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고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구원의 보물로 주시게 하신다(골 3:12).

④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교제의 표현이다. 삼위일체는 곧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또한 교제와 친교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활동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17:23,24). 모든 것을 그 형상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도(17:22,23). 또한 인간 서로의 사랑도 가능하도(요 13:14). 교제함과 사랑은 곧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안에서 완전 이루어진다.

⑤ 삼위일체는 계사와 기도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다(롬 8:26, 요 16:23, 24). 인간이 삼위일체와 비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삼위일체를 계하여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인간의 구속, 절대적인 기쁨, 모든 기본적인 교리와 깊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월요일(다음주일) 2부·3부 예배, 온 가족이 누리는 은총의 시간

전교인 가족연합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는 자체 예배)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어린이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
치고서 환영하였습다(요 12:13).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게 합
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영광을 돌려
야 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을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물론 특별색
지도하여 책임있는 합삭해 사건과 가감하다면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
습니다. 특별히 창년 예배에 익숙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창년 예배의 순서를 미리 설명
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지도를 바랍니다(롬 12:1). 혼합한 예
배가 되지 않도록 직분자들은 2곳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우리의
노비를 공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에게 놀라운 은총
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2005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오늘(13일) 개강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불날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곧 교육국으로 가서 신청하십시오.

*개강예배 : 오늘(13일) 오후 3:00 갈릴리홀(수요성경공부, 교시양성부 신청자)

*자세한 사항은 8면을 참조하세요

오늘(13일), 제4차 CMTC 훈련(둘째 날)

제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오후 6:10~7:00)	갈릴리홀
제2강	타종교 이해 및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	(오후 7:10~8:10)	갈릴리홀

정교 카톨릭 (베다니홀) / 회교 (나사렛홀) / 힌두교 (본당 112호) / 불교 (갈릴리홀)
(*제2강 강의는 '타종교 이해' 30분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 30분입니다.)

PALM SUNDAY

**“... ⁽⁸⁾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up to each other; Who has a case against Me?
Let him draw near to Me. ⁽⁹⁾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is he who condemns Me? Behold,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 (Isaiah 50:4-9)**

On this Palm Sunday, as we remember Jesus' ride into Jerusalem on a donkey, where the crowds welcomed Him with shouts of "Hosanna", and soon thereafter turned with shouts of "Crucify Him", let our hearts acknowledge the real meaning of being a faithful witness. Jesus came and talked to the church, but the religious officials at first ignored Him, then hated Him, and eventually had Him killed. With human eyes, the church saw Him ride a stupid donkey, and gave him little respect. The greatest King of kings was among them, but He was not the kind of king they wanted. Indeed, they had waited a long time for their Messiah, but they missed Him because they were unable to recognize Him. Their traditions, culture, laws, and own faith prohibited them from acknowledging the true Messiah. At the real Palm Sunday, two thousand years ago, the people praised Him and sang to Him, but spiritually they were in the dark, and the result was terrible.

If Jesus does not do what you want Him to do, if His actions are not what you expect, do you turn away, do you crucify Him? The church always needs to be keenly aware of spiritual matters. We need to be extremely careful and pay close attention to God's doings. Today's Bible verses talk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eyes, ears, and mouth that focus on the word of God. In order to be aware of and have appreciation for God's work, if we want to be faithful witnesses, Christians must dedicate themselves to listening and speaking God's word.

If you do not listen to God's word, you cannot speak God's word. Real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God. If you do not listen to God's word, how can you possibly preach it to other people?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God's secret. It is spiritual in nature, and you cannot obtain it through your own knowledge and study. You need the Holy Spirit to open your heart to hear and understand God's word.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ord God! God's message requires a special messenger, someone who listens to the word of God. A true servant says, "The Lord God has given Me the tongue of disciples, that I may know how to sustain the weary one with a word. He awakens Me morning by morning, He awakens My ear to listen as a disciple. The Lord God has opened My ear; and I was not disobedient nor did I turn back"(vv. 4&5). People give so much attention to other things, like their health, clothes, and kids that they do not have the time and energy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God needs to come first in everything. You should wake up and start each day by reading the Bible. The voices of the world pull us in many directions, and can drive us crazy sometimes, but Isaiah stresses the importance of listening and paying attention to the word of God, not other things.

Many of today's pastors do not search for God's word, but instead look to what their congregations want to hear. They focus on cultural needs and methods. They look for what is moral and desirable, what is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Whoever listens to these pastor's worldly words canno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because they do not preach the Gospel, the truth of eternity. They do not preach from the spirit of God, and that is why others do not feel or sense His presence. Many pastors spend most of their time counseling congregation members or handling problems with their ministry staff, and leave themselves little to no spiritual time with God.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dealing with people. If you want to be an ambassador of God, please listen to the word of God. Let God be first in your life.

God has given us eyes, ears, and a mouth. He does not want us to

only see and hear, but also to speak. He has given us a wonderful tongue with the authority to speak His word. Whenever you use your tongue for His glory, He is pleased. If you have the tongue of disciples, then you can "sustain the weary one" with a word. Matthew 11:28 say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here is an answer, but you need to tell the weary one that he or she has to come to Jesus for help. If you introduce and bring the heavy-laden to Jesus, they can listen to God's Word, fo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them. John 16:13 promises,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You need to talk and confess Jesus to those in need. You have to speak to them about real truth,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Jn. 14:26).

In order for you to tell others about Jesus, you first need to listen to Him, then you can talk. When you talk with His power and authority, they can hear God, and then they can talk to Him. Your words will give them encouragement, hope, peace, and eternal blessing, if they accept them. Please help the weary soul in need of Jesus, for one soul is more worthy than the whole universe. God has given you a great tongue; please use it for His glory.

Without a dedicated heart, you cannot withstand the hardships that come with Christian living. When pain and suffering arise, you will fall, you will quit, unless you devote your loyalty to Jesus Christ, "I gave My back to those who strike Me, and my cheeks to those who pluck out the beards; I did not cover My face from humiliation and spitting"(v. 6). Faithful witnesses are able to endure persecution and agony because they deny themselves, take their crosses, and travel the narrow way. The world will hate you, but Jesus says, "If the world hates you,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Jn. 15:18). Jesus also warns,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you may be kept from stumbling. They will make you outcasts from the synagogue, but an hour is coming for everyone who kills you to think that he is offering service to God"(Jn. 16:1&2). There is real persecution, even within the church. People who think they are following Jesus will try to hurt you, so you need to be truly dedicated.

With a dedicated heart, you will not only be able to bear adversity, but also experience peace. Jesus says,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Jn. 16:33). God will help you in every situation, "For the Lord God helps Me, therefore, I am not disgraced; therefore, I have set My face like flint, and I know that I shall not be ashamed.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tend with Me? Let us stand up to each other; who has a case against Me? Let him draw near to Me. 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is he who condemns Me? Behold,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vv. 7-9). Take courage in God, and do not let your faith be shaken.

Are you a dedicated Christian? Do you really listen to God's word, and share it with those in need? Can you say,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Phil. 1:21) Jesus is now here spiritually, and will one day appear here physically, so please pay serious attention to His Word, and talk bravely to those He places in front of you. This Palm Sunday, praise and sing to Him with dedicated hearts, and the result will be wonderful. 🌿

다음 주일 설교

종려 주일

“...⁸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물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⁹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웃과 같이 헤어지며 쏠에게 먹히리라”(사 50:4-9)



강성원 목사

이번 종려 주일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돌아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 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중언이 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고 조금 지나서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나,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왔을 때는 그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 율법,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린 믿음의 그늘을 가리워서 진정한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천 년 전 그 날,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로 치명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민약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눈과 귀,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실한 중언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감추어 둔 비밀입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뛰어날수록 해서, 혹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할 수 있어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깨닫는 일은 성경남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종을 통해 전달됩니다. 신실한 종 이시라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나 나로 곤한 때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라미다 게우시시도 나의 귀를 게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4:5). 요즘 사람들은 웹페이지라든지 유행하는 유타드든지 아이들 양육 문제 같은 세상적인 일에 너무 몰두해 나머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신령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수 없게 함으로 우리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이시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봐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회중이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들의 눈은 현대 문화에 필요한 것은 찾아야 방법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것,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세상적인 설교를 즐겨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에는 영원한 진리, 곧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설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중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상담하거나 행정담당자들과 문제점을 의논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 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귀뿐만 아니라 입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보고 듣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입술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입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참 제자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으로 곤란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로와 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지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약속합니다. “그러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해야 그들이 듣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 평강과 영원한 축복을 안겨 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절대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을 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입술을 열어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부인이 없는 성도의 삶에 찾아와 고통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고통과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떠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6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충성스러운 종인들은 압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 15:18). 또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총화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살기는 예라 하리라”(요 16:1-2). 실제로 압박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조차 압박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진 사람들이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끄럼이 곧게 하였으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물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웃과 같이 헤어지며 쏠에게 먹히리라”(7-9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십시오.

나를 드러라

진리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곤한 영혼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마음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것이 그리스도이고 주는 그대 유약함이라”(제12). 지금도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 날이 이르면 반드시 육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우리에게 보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종려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

주요1부 예배 메시지

화목

(롬 5:10,11)

삼을 인한 구원, 그리고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셨다. 그의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1.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고 사랑을 확증하셨다(롬 5:6).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교회도 현실적으로 유익된 것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다.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것 자체가 기적일 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있다. 영의 눈을 따라 한다.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대가 없는 화목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을 뿐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한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거할 수 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종의 복음이다.

2.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주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며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롬 8:34). 갈보리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평화를 하셨다. “평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보여준 것은 복음을 증거 하는 삶, 화복케 하는 삶이다. 화복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험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

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새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히 8:6). 살아 계시는 주님의 중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기업을 준다(히 9:15). 또한, 우리의 기업은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기쁨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민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 참 화복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나라에 나타나시리라”(히 9:24).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비요할 수 없다(히 12:24). 또한 주님은 대언자, 화복제물이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우리 죄를 위한 화복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여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임이라”(요일 2:10). 우리는 매일 매일 낙오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 대담, 구원자가 되신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찬 500장).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죽음, 살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3. 하나님은 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화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요 15:11). 이 말씀을 할 때의 상황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은 기쁨을 베푸셨다. 이처럼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 영의 눈과 기쁨을 얻은 성령을 통한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의아들은 교제 속에서 성령님이 계신다. “내 영혼이 그처럼 깊은데서 ... 인하여 흘러와 ... 평화 ... 하늘 위에서 내려 오네”(찬 469장).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은혜는 변함없이 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저금기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이것은 참된 화복의 결과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베전 1:8).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전하자. 구약도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창 12:3, 사61:10). 우리가 구원의 무릎, 생수의 샘이 되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으심을 통한 화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다. 이 영원한 기쁨을 온 땅에 전하자. “큰 죄악 빠진 자를 예수 간직하시 ... 주 예수 다들 때 그 은혜 받으려고 ...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 날로 더욱 기뻐하다 날로 더욱 기뻐하다 한이 없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기뻐하다”(찬 417장).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셨던 예수님은, 매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도 모자랄 정도로 직파무성인 사 람파는 달리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나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나”의 죄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 밖에는 드릴 말이 없다.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난 지금, 예전과는 조금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항상 “나”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함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에 죽기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지금도 날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부르짖으실 예수님을 되새겨 본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 또한 주님의 기도를 돕고 싶다.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진짜 기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진오 (충무2부)

주님의 기도

매일 금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된 충헌교회를 사랑하시어 그 지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차 청지기 훈련에 새 가족들과 많은 성도들이 분방은 물론 갈릴리움, 베다니로까지 새달이나 새삼 주님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 생각하게 되었고 홀로 밤이 세도록 기도하던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는지 또 자신보다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만남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 생활을 했구나 하는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도는 바로 자유의 능력이며 구원이요 구원의 기쁨 속에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임을 청지기 훈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종의 형제를 가지고 나라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아닐는지요. 주님을 영접한 제 삶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면 다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충헌교회의 성도로서 청지기 훈련에서 받은 이 은혜를 토대로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확신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깊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와 만남의 시간을 늦추지 않도록 더욱 기도 하겠습니 다.

“사순절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부활을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주여, 이 처음 사람이 끝까지 변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리병준 (새가족부)

장로 칼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나기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나기나교회로 장래하였을 아라(고전 2:2)



이 홍 씨 (나기나교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누게서 배려해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회방향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는 것"(마 16:15 참조)입니다. 기회위원회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열 명의 기회위원 장로와 일곱 명의 실행위원 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들은 기회위원회에서 자신의 은사에 적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칠여 년 전에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갈릴리움에서 첫 새벽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설교하신 내용이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הללו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위임목사님은 부임하신 이래 범함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음을 충언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말씀 중에 담겨져 있으므로, 기회위원회에서는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세우야 할 계획의 방향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

기회위원회에서는 복음이 세계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는 교회회와 운영 규정 및 세칙의 수정·보완 작업을 작년 말부터 진행하여 금번 개정·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보완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회칙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에 무게를 더 두었습니다. 회칙변경은 당회의 결의로 하였습니다. 장로 선출은 당회에서 책정된 당회안에서 선출되어야 할 장로의 인원이 확정되면, 안수집사들 중에서 위임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당회에 상정하여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장로 후보자를 확정하고, 이 확정된 후보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로 선출됩니다. 교회의 조직은 인제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함

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의 지상명령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갈 6:14 참조)에 도움이 된다면,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 규정도 변경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을 교회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특별히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출전 심리타운을 기도원 부지에 짓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 동안 행정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협력해서 기초 작업이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노령화되어 갑니다. 젊은이들은 줄어들면서, 노인들이 각 가정에서 보살핌이 매우 힘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섬기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에서 섬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출현복자'에 관한 기도입니다. 복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장래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마 28:19,20)이며, 교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먼저 십자가 복음 안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출현복자관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해결되면 심리타운을 설립하는 일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남곡당을 짓는 일입니다. 성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는 좁고, 묘지는 늘어나서 사립묘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현동산도 향후 십년이면 거의 다 묘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출현동산 부지에 남곡당 신축을 구상 중에 있으니 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

골로 1:7 기회위원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마 16:24). 그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협력하면서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 중에 모든 것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교회의 이원적인 일을 계획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일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제 계획을 뱉으나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서 능히"(잠 16:33). 우리 기회위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출현교회에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우두 속 수 있도록 더욱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⑤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저는 20대 초반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던 중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두 해 쯤 되던 어느 날, 설교를 들던 중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아는 죄 때문에, 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는 우울증에 걸려 병명해지고 무감각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사탕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습니 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길 기하시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993년 그 해 겨울,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마음 속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사도행전 9장과 이사야서 43장 1-7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부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일 년 동안 지내다가 1994년 10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학교에 입학하였고, 1996년 3월 졸업을 하였습니다. 한 달 후 고향에서 2,500km 떨어져 있는 내륙의 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던 중, 중국인 자매 즉 지금의 저의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1997년 어느 한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통역이 필요하네 와서 통역할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아 북경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어느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신학 강의를 위한 통역을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한국에 왔지만 이곳에서도 고국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부담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동안 고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질까 두려워 하나님께 "이 곳 한국에서도 고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부푼 저를 출현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더욱 확고히 세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역 준비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중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기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는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과정이기 위해 어떤 영혼을 찾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 합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기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 훈련에 집중하려 합니다.



유성동
(현진인 선교사 준비생)

이런 주일에 흠뻑하는 선교팀

이런 주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3월 14(월) - 3월 22(월)	직원0	최상기	3월 19(월) - 3월 11(월)	직원2	이철호
3월 14(월) - 3월 22(월)	12교구 5지역	지영순			
3월 14(월) - 3월 22(월)	5교구 2지역	장석운			
3월 15(월) - 3월 23(월)	15교구 1지역	한철호			
3월 15(월) - 3월 24(월)	10교구 추가	박재민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수직 살고 기도합니다.
(선교회기도: 매주일 오후 4:00 / 갈릴리움)

소년부 성경학교 후기

나도 천국 일꾼답게



이번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 일꾼'이었다. 성경학교에서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천로역정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렸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기도했다.

또한 천로역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재미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다. 긴 과정에 임하면서 앞으로 나도 천국 일꾼답게 유혹을 이기야겠다고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효진 (소년부)

청년2부 수련회 후기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 아니 글썽~

한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늦은 밤을 지나며 훈련을 거듭하여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목침놀이 주님을 찬양하신 찬양팀, 폐회예배후 총혈된 눈들이 제겐 웬 은혜 던지요.

♥ 어쨌든~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말씀의 비밀들을 말씀으로 밝히며 우리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성령님을 새롭게 찾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감사...

♥ 세상에서~

탁아부 선생님들의 배려로 집회에선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탁아 부에선 어린이들을 돌보며 구슬땀 흘리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려운 설이기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웃으며 식사를 준비해주셨던 모든 선생님.

♥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벌써 기대됩니다.

임원여러분, 10월까지 주-육 수고하시고 수고를 통해 또다른 기쁨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했어요.

김지은 (청년2부)

청년1부 수련회 후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저의 마음은 몹시도 강박한 마음이었습니. 매번 수련회 때마다 은혜 받고 돌아왔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생활하며,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자주 보아 왔기에,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에 이번에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컨디션이 좋지 않아 피곤하였기에 말씀을 듣는 동안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시간에 많은 기도제목들을 듣고 들어왔지만 줄줄기도 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 혼자 많이 속상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원하니까 내가 가라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주님께서 첫째 날과는 달리 귀한 은혜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 동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귀한 교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집회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앙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한걸음씩 나아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역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 에레미아처럼, 바울처럼, 현실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연합함을 도우시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온전히 나의 마음을 맡기지 못했던 수련회 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천국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성진 (청년1부)

대학부 수련회 후기

자기 부인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 없는 것, 근심 없는 것, 무조함 없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수련회를 가기 전의 내 모습은 마음 속에 슬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 저서 피곤함을 느꼈던 적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와 온전히 크고 비밀한 것을 보아 주길 원하시지만 나는 기대 없고, 소망 없는 모습을 팀원들과 나누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들어갔다. 주제는 '기쁨'. 폐회 예배 때까지 모두 10강의 빌립보서 강의를 들으며 나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기쁨. 바울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삶.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내 가슴을 메었다.

내가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친히 인장이 되어 내어지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지체들 앞에서 낮아지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 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 라고 고백하며 팀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시작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체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정말 신기한 것은 나에게 참 기쁨이 밀려왔다는 것이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고, 자기의 기쁨인 뜻을 위하여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나는 믿게 되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를 부인할 때, 그 기쁨이 나를 온전히 주관한다는 것을. 나의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인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를 계속 이끄시기에 내가 아무 염려 없다는 것을.



정태은 (대학부)

교회 탐방 56 김달연 집사 · 김순 권사 가정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천국을 사모한다. 그래서 천국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양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주님의 실제적 체현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주일에 있는 종려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미리 나누기 위해 사절에 붙바림 부는 가정을 소개한다.

조부모님께서 날다르게 와목한 가정을 이끌어 오신 믿음 무엇인가?

- 오직 기도였을 뿐입니다. (김달연 집사, 알바버지)
-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면서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려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김순 권사, 알바녀)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뱃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 제가 부족하여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믿음의 본을 보여 주려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희동 집사, 딸아들)
- 신앙은 말로 전해 주기보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정애 집사, 딸며느리)
- 아이들이 오이려 믿음에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수연 집사, 작은 며느리)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받은 자녀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회생활을 비롯 모든 면에서 맡은 바를 열심히 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대학부)
- 입학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의지하였습니다. (김가연, 대학부)
- 생활 속에서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보낼 때, 기도하면서 말하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홀로 서는 신앙의 중요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김가연, 대학부)

조부모님께서는 생애를 통하여 언제 예수 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셨나요?

- 95년에 남편이 드났듯이 찾아 온 위임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만 믿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지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더욱 믿음이 성장했지요.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김순 권사)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 주를 믿는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희동 집사)
-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정애 집사)

믿음으로 키운 손자들이 아직 어린 나이지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들었습니다.

- 공군이냐 초등학생으로서 외국 유학 중이었을 때, 주일이면 일찍 출석해서 교회 청소를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적인 성경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군이냐 중등부에 다니는 학생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더욱 믿음이 자라 기뻐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순 권사)

몰려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은?

- 대대손손 믿음을 이탈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외치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참길입니다. 또 한 영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순 권사)

종려 주일(다음주일)에는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예배를 기대하면서 받고 싶은 은혜는?

- 새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모두 복음 위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김가영)
- 제 살에 앙상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가연)
- 가족이 한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무뎠던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가연)
- 종려 주일각자의 마음에 성령이 깊이 임하시기를 미리 기도합니다. (이정애 집사)

믿음의 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께는 디모데를 낳았다. 디모데 가정처럼 오늘날도 믿음의 조부모와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두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였듯이 김달연 집사와 김순 권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아름다운 가정의 은혜가 느껴진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131장 주 예수 나귀 타고

이 찬송은 존 킹(John King, 1738~1858)의 찬송 중 우리 찬송가에 실린 유일한 찬송이다. 작곡은 버틀스 투어스(Berthold Tours)가 작곡하여 조세 경이 1872년 출판한 '찬미가'가 처음 실린 찬송이다. 이 찬송은 7,6,7,6,8,2 운율의 찬송으로 가운이 맞아 있다.

1절은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상하시는 모습을 그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히 아이들이 '호산나' 크게 외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 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을 노래한다.

2절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주 앞에 다시금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우리들이 만일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즉 온 맘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상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놀라운 구원을 배수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위원회)

새 가족 · 출 · 함 · 입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46	여러	19 외선부	이연애(19)	656	임인심	19 청년1부	임재철(13)	666	강승우	19 대학부	김정학(12)	706	윤국현	12 청년부	원현태(1)
647	최미경	6 청년1부	정경애(18)	667	이준근	19 청년1부	김종철(15)	667	조영민	17 청년1부	양승남(13)	707	김영철	12 청년부	원현태(1)
648	이창수	19 청년2부	염순애(18)	668	최인아	19 대학부	김순연(18)	668	김진우	19 청년1부	이현원(19)	708	신국남	19 청년1부	이현원(19)
649	최정환	7 청년2부	최희열(18)	669	김준우	19 대학부	문경자(19)	669	김정훈	19 청년1부	유은진(1)	709	유주영	19 청년1부	이부생(1)
650	신준엽	1 청년1부	최미경(17)	670	김진영	19 고등부	이은혜(12)	670	한병재	6 청년2부	정승철(17)	710	김종필	6 청년2부	정철호(1)
651	백현숙	1 청년3부	신영귀(17)	671	이우현	19 청년1부	최희재(17)	671	김진아	19 청년1부	김정숙(10)	711	안영우	19 청년1부	김민철(16)
652	조익훈	1 청년3부	조연애(17)	672	김현정	19 청년1부	최은혜(17)	672	차지훈	19 청년1부	최정애(15)	712	김태환	19 청년1부	서지순(1)
653	문화	19 외선부	서계열(17)	673	김지혜	19 청년1부	김옥선(15)	673	이희원	17 청년1부	조숙애(15)	713	이희원	19 외선부	이진모(12)
654	햇타	19 외선부	남수자(17)	674	김민정	19 대학부	김영희(13)	674	남정민	19 대학부	이진동(17)	714	김재미	17 청년2부	이진규(1)
655	바이라	19 외선부	윤선자(17)	675	김희선	19 청년1부	박재현(18)	675	이영선	13 청년2부	정종욱(13)	715	이혜연	19 청년1부	권복은(10)
656	심현희	19 대학부	최금철(12)	676	김희배	16 소양부	남성진(17)	676	김갑수	20 청년2부	김현수(17)	716	장화숙	19 청년1부	
657	박병자	13 청년3부	정순애(17)	677	김민정	19 대학부	함은진(15)	677	윤재홍	17 청년2부	이현근(19)	717	김미영	12 청년1부	이영선(12)
658	황준희	17 예비1부	박민기(17)	678	김준호	19 대학부	김윤선(15)	678	김진미	19 청년2부	이진동(17)	718	장성훈	12 청년2부	이준재(10)
659	김익려	11 청년3부	김준희(17)	679	김진배	19 대학부	함은진(15)	679	신도	19 외선부	신영귀(17)	719	박영웅	19 청년1부	이보희(13)
660	유광원	1 청년3부	박준진(17)	680	이영희	16 청년1부	류향민(19)	700	수현	19 외선부	이숙희(17)	720	남다은	19 청년1부	이진환(1)
661	김윤정	19 청년2부	황은정(12)	681	이정환	19 청년1부	박현숙(19)	701	김정진	15 청년2부	정종애(17)	721	김민정	12 청년3부	변종욱(15)
662	김선호	15 청년1부	박경애(15)	682	송동희	6 청년2부	문경자(19)	702	이재지	2 청년3부	구순진(1)	722	박정현	19 청년1부	박주희(19)
663	우후분	4 소양부	김광순(18)	683	김영진	19 고등부	황희철(17)	703	윤화희	19 청년1부	홍정숙(16)	723	전수진	19 대학부	김진영(1)
664	조이름	19 대학부	정영희(18)	684	김진영	19 고등부	한진영(2)	704	조영미	19 대학부	이현원(15)				
665	정혜배	10 소양부	김진영(18)	685	신현우	19 고등부	장민정(16)	705	황정식	15 청년1부	노광희(15)				

※ 총신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지회 월례회
일시: 16일 수요일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결혼

1. 강성구 군 (강원석 집사, 김경숙 집사의 아들, 7교구)와 신현영 양 (신명호 성도, 임영이 성도의 딸, 타고화/9교구 / 19일(토) 1200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실 ☎ 571-8100

주소변경

1. 김은주 장로, 홍양례 권사 강동구 갈등 4151 한울 브리즈 아파트 801호 ☎ 467-4689

◆ 2005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자: 3월 27일(주일) ~ 7월 3일(주일)
시간: 오후 3:15 ~ 4:30
장소: 제교목관 207호

◆ 증언전도대원 훈련

일자: 3월 16일(수) ~ 5월 4일(수)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
장소: 베다니홀

◆ 교육운영원 개강 안내

· 교사양성부
오늘(13일) 오후 3:00~4:30
베다니홀(개강예배는 갈릴리움)
· 찬양대원양성부
오늘(13일) 오후 3:00~4:30
제교목관 301호
· 수요성경공부
16일(수) 오후 3:00~4:30 / 저녁 8:00~9:30
지정된 장소(제교목관 307, 407호)
· 전도대원양성부
16일(수) 오후 1:30 베다니홀

◆ 2005년 상반기 회계 감사

대 상: 제1·2·3교구위원회 소속 교회학교
대상기간: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1월
구분서류: 시산표 2부, 원장, 금전출납부,
예산청원 및 정산보고, 영수증일 등
수감시간: 2005년 3월 27일(주일)까지
장 소: 감사위원회실(302호)

◆ 동서노회 제67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
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 고시 청원(감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별)
② 감도사 인허 고시 청원 ③ 전도사 고시 청원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함)
⑤ 신학 계속 추천 청원 (총신대학 및 총신신대학 재학생)
· 제출마감: 2005년 3월 16일(수)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 ☎ 552-8200 #404

이번 주 사순절 새벽기도회 담당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이태식	나광영/강두형	나광영/최세진	나광영/김윤환	나광영/윤종국	하종철/전은희	정중신/김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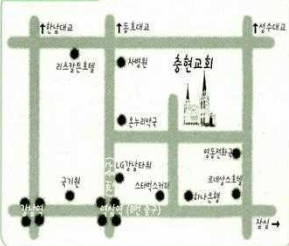
예배담당 안내 (3/16-3/20)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3/16	수요 I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호산나 찬양대)	김익환	이상욱	마리아의 사역 (요 12:1-8) 김성관 목사
3/16	수요 II	이 세상 험하고 (실로암 찬양대)	최성규	이승훈	진정한 믿음 (눅 7:18-23) 정성영 목사
3/18	금요집회	유년부 중장년(소프라노) 김희영 합창단 선교회 찬양대	김용덕		김성관 목사
3/20	주일 I	(예배 전 찬양)	정성영	신상수	종려 주일 (사 50:4-9) 윤수일 목사
3/20	주일 II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외3중창(소프라노) 김순연 소년부 장하나, 조동환	이희식	안석원	종려 주일 (사 50:4-9) 김성관 목사
3/20	주일 III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외3중창(소프라노) 김순연 소년부 장하나, 조동환	나광영	김의철	종려 주일 (사 50:4-9) 김성관 목사
3/20	주일 IV	이 세상 끝날까지 외(소프라노) 김자숙(이영대 홀로이스트)	임현덕	이종식	종려 주일 (사 50:4-9) 안치원 목사
3/20	주일 V	다 찬양하여라 외(비바올린) 이예스다(비발디 오케스트라 악장)	김영훈	임필성	종려 주일 (사 50:4-9) 이재형 목사
3/20	주일찬양	별명 남성중창단(이영대 찬양대)	김용덕	박승길	복음의 일꾼 (골 1:20-29) 정중신 목사

3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목사단의 사역을 성령강령에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2005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 충현의 모든 정치가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④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뚇한 전으로 함께 이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확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새롭고 시작된 수요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대원훈련을 통해서 충현의 전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 ⑧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재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본 · 품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임필성 이훈 남선우 김영길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식
안종욱 임두진 이갑재 전홍용 전홍원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원 황의만
김구형 최은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부 박종국 권명옥 조종환
김영달 이신호 최지윤 노영남
정철길 신상수 고계승 강철형 김영은
이달욱 장철환 김승곤 함철주 윤석진
정신원 안석원 김언근 김장국 김중신
임창식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기근 류병희 김영훈
여극근 안정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위관장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중신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이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정성영 이경훈 김태석 김성훈
■ 여전도사
정진희 신동자 윤안국 현영준 김연희
홍순애 이옥주 김필자 안태순 김정연
조옥자 강덕필 최문선 전은희 김영순
김옥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일 임태주

- 찬양감독 강인규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감독자 김소연
■ 신 교 사 송요한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서합동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서합동 예배)	본 당
전 안 예 배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목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철야	오후 10:30	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목관 2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2교목관 1층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예배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교육관 2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타 학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10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생각자유학부	오후 12:15	베다니홀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종교이원리전	주건교과	교육관 107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목관 4층	경신장영인교육	주건교과	충현복지관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목관 4층	국제국악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목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서합동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